

공공도서관의 영아 대상 서비스 실태 및 북스타트를 통한 서비스 확대 가능성 연구

A Study on Exploring the Services of Libraries for Babies and Toddlers and the Possibilities of Service Expansion through Bookstart

김수연(Soo-Yeon Kim)*
강정아(Jeong-Ah Kang)**

목 차

- | | |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 공공도서관 영아 대상 서비스 연구 결과 |
| 2. 영아를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 | 5. 결론 및 제언 |
| 3.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 |

초 록

이 연구는 도서관의 영아 대상 서비스 실태를 분석하고, 특히 북스타트가 영아 대상 서비스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 회원 등록기준을 분석하였으며, 도서관 어린이실 사서를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76명)와 면접조사(14명)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어린이 공공도서관의 회원 등록은 출생 직후부터 초등학교까지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영아를 포함하지 않는 도서관이 있었다. 도서관에서 만36개월 미만 영아들을 위한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가 54.8%로 나타났다. 둘째, 사서들은 도서관 첫 이용 시기로 영아기(44.0%)보다 유아기(52.0%)를 더 적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도서관 사서들은 북스타트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있었으며(100%), 북스타트가 시행되어야 할 가장 적합한 장소로 도서관을 꼽은 비율이 82.4%이다. 넷째, 북스타트 도입 이후 영아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및 아기 양육자 인식 변화, 사회적 공동 육아 실현, 이용 횟수 증가, 사서의 독서지도 및 프로그램 기획 역할 강화, 영·유아 조기 독서습관 형성에 기여, 도서 대출량 증가, 가족 이용자의 증가 등 도서관의 영아 대상 서비스 내용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services of libraries for babies and toddlers and the possibilities of service expansion through Bookstart as a cooperation system for libraries. This study presented the problems of the services of libraries for toddlers by implementing the questionnaire method and the in-depth interviews. In addition, this study showed the impact of carrying-out this program and why libraries should manage the Bookstart program. Results indicated that: (1) even though the membership enrollment standard of children's libraries is usually from babies and toddlers up to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at of a few libraries is still ov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s will work on restraining the services of libraries for users, especially toddlers, only 54.8% of libraries services are for the toddlers; (2) by analyzing the perception of librarians, we get to know that librarians think that the age of the first use of a library is more appropriate for kindergarten-agers than toddlers; (3) librarians think positively about the Bookstart and that libraries are more suitable for Bookstart than any other institutions; (4) after the introduction of Bookstart to libraries, many changes happened in respect of the function of libraries and the types of users. For examples, there was an expansion of users to babies and toddlers and their parents, an increase in users, focusing on early-childhood reading education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role of librarians as program planners in particular.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ntroduction of Bookstart would bring changes to the concept of traditional libraries and the inflexible attitudes of librarians.

키워드: 공공도서관, 영아 대상 서비스, 북스타트, 어린이도서관, 회원 등록기준

Services of Libraries for Babies and Toddlers, Bookstart, Membership Enrollment Standard

* 대원대학 조교수(mirinea@mail.daewon.ac.kr)

** 제천기적의도서관 사서(isori69@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09년 11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09년 12월 1일 게재확정일자: 2009년 12월 10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139-161, 2009. [DOI:10.4275/KSLIS.2009.43.4.13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어린이 대상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은 도서관법에 공공도서관 전체 열람석의 20%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국 도서관 기준(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편 2003)은 이용자 봉사 부분에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봉사'와 '교육·문화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봉사'를 기술하고 있다.

한국 도서관 기준은 강제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도서관 기준은 도서관의 서비스 발전과 개선, 서비스 구조의 확립 및 경영 평가를 위한 지표 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 도서관은 전통적인 기능과 영역에서 탈피하여 학생 또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기관으로써 어린이와 노인까지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도서관에 쉽게 접근하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어린이 전문 도서관의 확장은 팔목할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한국 도서관 기준의 아동에 대한 봉사와 그 내용으로써 프로그램 봉사에 대한 기술은 어린이 대상 서비스의 양적·질적 성장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아동에 대한 도서관 기준 내용의 불명료함이다. 도서관 기준의 아동에 대한 범위는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다. 분명한 것은 아동의 범위에 '영아'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국 도서관 및 사서들의 영아

대상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매우 미흡한 상태일 수 있다. 한국의 어린이 전문 도서관뿐만 아니라 전체 도서관이 평생교육기관으로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에 영아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도서관협회는 1991년 국가 전체 도서관 제도의 일부분으로 어린이 도서관 봉사를 수용해야 함을 천명했다. 국제도서관협회의 가이드라인은 특히 영아를 위한 도서관의 서비스는 중요하며, 성인을 위한 서비스와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IFLA 2008).

한국의 도서관정책은 어린이 및 영아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확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2009년 발표한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2009 시행계획'에 따르면, 어린이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추진전략으로써 어린이 도서관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어린이도서관 서비스 다양화 및 도서관 정보서비스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어린이 독서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협력체제 차원에서 '북스타트', '한 도시 한 책 읽기' 등 독서운동을 장려하고 있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9).

평생교육의 출발점인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서비스의 확대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도서관의 토대를 형성하고 역할을 강화해주며, 궁극적으로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도서관 중심의 영아를 위한 독서문화의 확산은 사회적 육아지원의 한 가지 형태로써 사회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중요한 방

법이며 궁극적으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영아기 부서의 도서관 이용 경험과 그림책을 통한 부모와의 소통 및 교감으로 이어지는 독서 경험은 인간이 자연스럽게 도서관 및 책과 친해지면서 평생의 삶을 풍요롭게 살도록 도와준다.

한국의 도서관 정책은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만일 도서관정책에 또는 기준에 기술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도서관은 현재의 서비스 대상 범위와 수준에 만족해야 하는가?

이 연구는 도서관이 어린이 서비스의 대상으로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3세 이하의 영아를 포함해야 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써 북스타트 사업을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리고 도서관이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도서관 정책이 변화하길 기다리기 보다는 도서관 스스로 서비스의 문제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이 북스타트를 통하여 서비스의 기능과 영역에 영아를 포함함으로써, 평생교육기관으로써의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공공도서관의 기관장과 사서들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통해 도서관 문화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 도서관의 문화와 대상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영아 대상 서비스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도서관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한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에서 북스타트를 도입한 이후 영아 대상 서비스 내용에 변화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북스타트는 도서관의 영아 대상 서비스 확대와 관계가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의 영아 대상 서비스 실태에 대하여 조사한다.

둘째, 공공도서관 사서의 영아 대상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셋째, 공공도서관 사서의 북스타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다.

넷째, 북스타트는 공공도서관의 영아 대상 서비스 내용을 변화시키는가? 즉 북스타트 도입 이전과 이후에 공공도서관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2. 영아를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

2.1 왜 도서관은 서비스 확대 대상으로써 영아에 주목해야 하는가?

도서관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언제부터 도서관을 이용하기 시작했느냐는 질문을 하면, 십중팔구 어린 시절로 기억을 더듬어 갈 것이다. 40세 성인보다는 4세 어린이를 도서관의 평생 고객으로 만들기 훨씬 쉽다(마이클 설리반 2005).

국제도서관협회는 전 세계 다양한 나라의 공공도서관이 어린이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영아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출생부터 생후 12개월에 해당하는 영아(babies)와 생후 12개월부터 3세까지에 해당하는 영아(toddlers)를 타깃집단으로 명확히 하

고 있다(IFLA 2008).

영아기는 인지적 성장과 언어발달이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초기의 뇌 발달 연구는 영·유아에게 말하기, 노래, 읽기는 언어와 말하기 습득 할 수 있는 명백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영아의 읽기 이전단계 발달에 있어서 환경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자극적인 읽기 환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모가 어떤 읽기 환경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부모의 개입 및 부모가 읽기 자료를 이용하는 정도는 중요한 읽기 환경이다(IFLA 2008). 이러한 맥락에서 적절한 언어경험을 제공하는 어머니 또는 양육자의 역할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전효정 외 2004; 육길나, 김숙령 2009). 따라서 영아에게 있어서 도서관 서비스의 이용도는 매우 중요하다.

영아기 언어발달에 기초가 되는 초기 비언어적 의사소통과정의 중요성을 부모교육을 통하여 강조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부모교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은 도서관과 같은 평생교육기관이다. 도서관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접근성이 필수적이다. 초기 단계의 도서관 소개는 쉬운 수준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용자들은 기꺼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야 하며, 도서관은 이용할 수 있는 자료와 기술을 배우고 답을 찾으려하는 장소가 될 수 있어야 한다(IFLA 2008).

“한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가장 어린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이 아프리카 속담을 지지함으로써 구체화될 수 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영

아를 키우기 위해 도서관 역시 영아들이 장난감, 책, 멀티미디어와 자료를 포함한 환경을 가질 권리를 촉진해야 한다(IFLA 2008).

평생교육의 출발점인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서비스의 확대는 영아 개인에게는 영아기 부서의 도서관 이용 경험과 그림책을 통한 부모와의 소통 및 교감으로 이어지는 독서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서관과 책과 친해지면서 평생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어린이들이 창작물과 지식에 대한 영감을 빨리 접할수록, 평생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게 될 것이다(유네스코 1995).

2.2 국외 도서관의 영아 대상 서비스 동향

국제도서관협회와 유네스코는 공공도서관 가이드라인에서 어린이 서비스를 위한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Philip Gill(ed.) 2001).

“공공도서관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범위의 자료와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독서의 즐거움과 지식을 발견함에 있어서 짜릿함, 그리고 상상의 나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은 도서관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쇄매체와 전자매체를 활용해서 능력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아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그 아이들을 미래의 도서관 이용자로 남을 수 있게 할 것이다.”

국내외 어린이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의

기본 원칙에는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는 어린이의 인종, 국적, 종교, 성별, 연령, 능력, 경제적 배경, 교육 정도, 신체적 특성 등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어린이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의 공간, 자료, 인력, 프로그램 등은 어린이 이용자의 연령, 성별, 학년, 흥미,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특성과 요구에 맞게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김중성 2008).

국제도서관협회(IFLA)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린이 서비스 가이드라인에는 3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공공도서관을 자유롭게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수적 사고 능력과 읽고 쓰는 능력의 발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구성요소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IFLA 2008).

외국의 어린이 도서관이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서 갓난아기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일반적이다(마이클 설리반 2005). 출생부터 생후 1년에 해당하는 영아기(babies)는 정신 구조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소리, 리듬, 색, 감촉 같은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는 법을 배운다. 비록 영아 서비스는 보편적 서비스는 아니지만, 이러한 개념을 소개하고 장서와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도서관이 늘고 있다.

아이들에게 일찍 책을 읽게 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은 영국과 미국에서 여러 가지 운동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북스타트는 세계에서 최초로 국가적으로 영아들에게 책을 나눠 준 프로그램이다. 1992년 영국에서 300명으로 시작한 북스타트는 모든 영아들에게 무료로 책 꾸러미를 나눠주기 위해 공공도서관, 교육위원회, 보건소 등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일하

는 프로그램으로써 종종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영아들이 7-9개월이 되었을 때 한권의 책과 읽고 쓰는 능력과 관계된 정보가 든 가방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 영아의 90% 이상이 수혜를 받고 있다. 가방 제공 이후 6개월, 2년 그리고 4년 후의 평가를 살펴보면, 책 읽기, 책과 함께하는 상호 교환적 활동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개하고 영아들의 책에 관한 흥미와 열정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북스타트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IFLA 2008).

미국 공공도서관협회와 도서관 아동서비스협회(the Public Library Association and the Association for Library Service to Children)는 공공 도서관이 부모들과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아이들의 첫 번째 선생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연속적으로 워크숍을 발전시키고 있다. 초기의 읽기 능력과 뇌 발달에 관한 연구를 활용, 기초로 하여 every child ready to read@your library 운동이 착수되었다(IFLA 2008).

미국 조지타운카운티 도서관의 취학 전 아동(0~4세)을 위한 읽고 쓰기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영아를 위한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도서관 직원들은 첫 번째로 지역민속학 및 음악에 바탕을 둔 취학 전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이후, 건강과 외국어 구성 부분이 커리큘럼에 추가되었다. 조지타운카운티 공공도서관은 이 커리큘럼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도서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도서관은 스토리텔링과 음악에 숙련된 기술을 가진 교사를 채용한 뒤, 이 커리큘럼을 갖고 42개 어린이보육센터를 매

달 방문하였다(세겔 2002).

호주에서는 도서관을 바탕으로 0세에서 2세의 아이들에 초점을 둔 읽고 쓰기 프로그램이 근래에 생겼다. 도서관을 근거로 연구와 평가에 중점을 둔 0세에서 2세의 대규모 프로그램은 호주 서부의 Better Beginnings Program과 호주 남부의 the Little Big Book Club이다(Hill 2006).

세계 각국의 영아 대상의 읽기프로그램,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아 서비스의 우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IFLA 2008), 외국 도서관의 경우 영아를 위한 서비스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비스 확대 가능성을 전망 할 수 있다.

2.3 한국 공공도서관의 영아 대상 서비스 현황

2.3.1 제도적 측면

한국 공공도서관 기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과 관련하여 명시된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한국도서관협회 2003).

- 공공도서관은 청소년, 특히 어린이를 위한 충분한 봉사활동을 실시해야한다.
- 청소년에 대한 특별계획의 작성과 그 운영에 있어서는 해당지역 사회에 관계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 어린이를 위한 봉사활동은 그 중요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여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도서관협회의 공공도서관 기준에 어린이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 우리나라 도서

관 기준에는 어린이 서비스에 대한 구체성이 매우 미흡한 상태이고 아직까지 독립된 어린이 서비스 기준이 없다(김중성 2008).

국제도서관협회(IFLA)의 어린이 서비스 가이드라인은 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에 유용하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 공공도서관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한국 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 가이드라인은 어린이 서비스 관련 기본 이념과 원리를 충분히 포함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 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즉 최근 증가하는 어린이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김중성 2008). 둘째, 대상 어린이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이다. 예를 들어, 영국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 가이드라인은 국제도서관협회(IFLA)의 어린이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여 5세 이하 어린이 대상 서비스에 대한 목적 및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는 반면, 한국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하다. 한국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는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3세 이하 영아는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 현황은 어떤 상태인가? 어린이 대상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어린이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다. 2006년 말 현재 28개 기초자치단체에 전체 564개 도서관 중 35개 어린이도서관(6.2%)이 있으며, 어린이 열람실이 설치되어 있는 공공도서관이 383개(67.9%), 어린이 열람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공도서관이 146개(25.9%)이다(표 1 참조).

〈표 1〉 공공도서관 어린이서비스 현황(2006년 말 현재)

구분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열람실 설치	어린이열람실 미설치	계
도서관수	35	383	146	564
비율(%)	6.2	67.9	25.9	100.0

※ 자료: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와 같이 공공도서관이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을 확보하고 열람실을 설치하는 것은 어린이 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양적 확대 노력에 따라 공공도서관 분야별 서비스 중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린이 이용자 비율이 30%, 자료 대출 책 수의 77%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그러나 공공도서관 서비스에서 어린이를 위한 시설은 17%, 자료는 23%, 직원은 13%에 불과할 만큼 어린이 서비스의 질은 매우 저조하다(표 2 참조). 이용자와 대출 책 수의 동향은 어린이 대상 서비스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 서비스를 위한 인력 및 예산 부족, 운영 노하우의 부재 등은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2.3.2 프로그램 측면

한국 도서관의 영아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 도서관 협력 체제로써 다양한 형태의 읽기 운동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로, 영유아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력체제로 북스타트를 들 수 있다. 둘째, 도서관 자체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영아 대상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홍현진 외 3인 2009).

첫 번째 유형은 도서관이 어린이 독서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경우이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북스타트' 독서운동은 어린이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추진전략으로써 협력체제 차원에서 장려되고 있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9).

북스타트 운동은 1992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독서문화운동이자 사회적 육아지원 운동이다. 북스타트의 목적은 유아가 있는 가정에 책을 무료로 나누어 주고 이 책을 매개로 해서 유아와 부모, 나아가 한 가정과 다른 가정의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Wade와 Moore의 연구에 의하면, 아기가 9개월이 되었을 때 부모들에게 책을 무료로 나누어 주고 영아들의 전반적인 발달 과정을 5년 동안 관찰한 결과, 초등학교 무렵에는 언어 및 수 개념의 발전이 눈에 띄게 발전하였다고 한다(김영석 2004).

〈표 2〉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 비중

구분	시설	자료	직원	이용자	대출 책 수
비율(%)	17	23	13	30	77

※ 자료: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우리나라는 시민단체인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이 2003년 북스타트코리아를 설립하여 보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8월말 현재 232개 지자체 가운데 약 36%인 83곳에서 북스타트를 도입, 추진하고 있다.

2009년 5월 현재 북스타트 시행기관은 도서관, 보건소, 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134개 기관이다. 그 가운데 도서관에서 시행하는 비율이 71.6%(96/134개)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보건소 10.44%(14/134개), 기타 17.9%(24/134개) 순서로 나타났다.

북스타트 사업은 책읽기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영아에게 책 꾸러미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북스타트 사업을 통해 보급된 책 꾸러미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12월 시범사업에서 96명(0.19%)을 시작으로, 2004년 1.05%에서 해마다 거의 두 배씩 증가, 2008년 현재 14.14%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다(북스타트 코리아 2009)(표 3 참조).

지자체별로 북스타트가 시행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특히 도서관에서 인생의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에 영아 발달을 자극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독서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아이를 도서관에서 성장시키는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북스타트 코리아 2008). 제천 기적의 도서관 북스타트 후속프로그램은 영아의 발달단계에 맞춘 '책 읽어주기'와 연결

된 아기의 오감 발달을 자극하는 다매체 활용의 '책 놀이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북스타트 후속프로그램은 대상자 유형 및 특성, 영아 독서교육에 대한 요구 분석, 교육과정의 개발 및 설계를 통하여 기획되었다. 북스타트의 구체적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정보, 부모 역할 지원을 위한 영아 부모교육
- ② 북스타트 품앗이 공동육아 동아리 프로그램
- ③ 영아 독서프로그램 '그림책 놀이'
- ④ 다문화 가정 및 소외지역 가정의 '찾아가는 북스타트' 아웃리치 서비스

두 번째 유형, 도서관 자체 서비스 개발의 형태이다(홍현진 외 3인 2009). 도서관 자체 서비스 개발의 대표 사례는 청주 기적의 도서관의 영아 서비스이다(서일민 외 1인 2007). 청주 기적의 도서관은 자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영아 서비스를 해왔다. 특히 여성 결혼 이주인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영아서비스를 해왔으며, 이야기·책·도서관과 함께하는 육아와 결혼이민여성이 다른 이용자와의 평등한 교류를 통한 다양성과 동질성을 확인하고 그들과 그 자녀가 다문화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1) 북스타트 개념의 선정도서 배포와 도서관 이용안내, 2) 영·유아와 어머니를 위한 두 연

<표 3> 한국 북스타트 책꾸러미 보급 현황

년 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출생아수	490,543명	472,761명	435,031명	448,153명	493,189명	466,666명
책꾸러미 수령자 수	960명	5,000명	10,000명	15,000명	33,000명	66,000명
책꾸러미 수령자비율	0.19%	1.05%	2.29%	3.34%	6.69%	14.14%

*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북스타트코리아 2009 내부 자료.

〈표 4〉 청주기적의 도서관 엄마랑 아기랑 프로그램 및 여성결혼이민자 프로그램

	엄마랑 아기랑	결혼이주여성	비고
접근	참가 이용자	방문 서비스, 참가 이용자	아웃리치 서비스
육아	스트레스, 정보 부족	스트레스, 언어·정보 부족	도서관 친구
교육자	어머니 스스로	도우미(동화구연가, 엄마랑 아기랑 멘토, 노인봉사단)	언젠가 스스로 한국말로
책	도서관 소장 자료 제공	책과 녹음 자료 구매, 제작 및 배포	집에서 학습 가능
도서관	공간, 자료, 교육	도우미, 자료, 공간, 프로그램	도서관대출증 만들기
교육 운영	주1회, 방학, 월1회 전문가 투입	월2회 방문교사 독서교육 다문화가정 교육 및 행사	도서관 서비스의 지속적 안내
교육 내용	음율, 체조, 책읽기, 놀이, 체험, 만들기	아기와 함께 한글교육, 문화교육이 책과 함께, 육아정보	육아 및 언어 학습
서비스	사회적 육아	공생차원의 사회적 육아	다양한 커뮤니티

※ 자료: 서일민 외 1인(2007), 이야기를 통한 어린이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제2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 이야기 녹음 자료, 3) 아웃리치 개념의 다문화 가정 방문 서비스, 4) 방문서비스 담당자의 독서활동 교육, 5) 체험활동을 통한 다문화이해 기반 마련, 6) 이야기 번역과 녹음에 결혼이주자 참여 등이다(표 4 참조).

청주 기적의 도서관은 충북 이주여성인권센터, 청주KBS총국과 연계하여 활발하게 결혼이민여성과 그 자녀를 위한 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다(서일민 외 1인 2007). 이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여성의 도서관 활용을 유도했으며, 그들이 아이와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확보하도록 도운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자평한다.

3.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3.1 공공도서관 회원 등록 기준 분석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 회원 등록기준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국 도서관의 홈

페이지에 기술되어있는 회원 등록기준을 수집하였다. 그 가운데 8개 어린이 도서관과 13개 공공도서관의 회원 등록기준을 기술하고 분석하였다.

3.2 질문지 조사 및 대상

질문지 조사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린이서비스협의회 자료분과 위원 및 전국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사서를 대상으로 도서관의 북스타트 도입 여부에 관계없이 실시하였다. 지역은 서울, 경기, 강원, 경상, 전라, 충청 등 6개 권역별로 구분하였다. 질문지는 서울 4개, 경기 7개, 강원 6개, 경상 15개, 전라 4개, 충청 4개, 총 40개 공공도서관을 표본 추출하여 배부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수는 총 76개로써, 전혀 응답을 하지 않은 도서관이 2개 도서관이 있었으며, 나머지 도서관에서는 약 1~3명의 사서가 응답을 해주었다(표 5 참조).

〈표 5〉 질문지 조사 대상 지역별
공공도서관명 및 수

지역	도서관명	수
서울	정독도서관* 강서도서관* 구로꿈나무도서관*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4개
경기	부평기적의도서관 안성시립도서관* 수원슬기샘도서관* 인천연수도서관* 인천북구도서관* 평택시립지산초록도서관* 서수원지식정보도서관*	7개
강원	강릉시립도서관 강릉로하스작은도서관 고성군립도서관 삼척평생교육정보관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사북공공도서관	6개
경상	대구광역시립북부독서관 대구광역시립서부독서관 대구광역시립동부독서관 대구광역시립남부독서관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대구광역시립두류도서관 대구광역시립달성도서관 대구광역시립대봉도서관 대구학생문화센터 진해기적의도서관 김해시립장유도서관 김해시도서관정책팀 김해화정글샘도서관 부산광역시립구덕도서관*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15개
전라	광양시립중마도서관 순천기적의도서관 익산시립영등도서관 정읍기적의도서관	4개
충청	청주기적의도서관 충북중앙도서관 금산기적의도서관 충청북도교육청중등교육과*	4개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린이 서비스협의회 자료
분과 위원

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도서관의 영아 서비스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도서관 영아 서비스 확대와 북스타트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질문지를 제작하여 실시하였다.

질문지 도구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사서들의 영아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 둘째, 도서관의 영아서비스 현황 조사, 셋째, 도서관의 북스타트 사업에 대한 조사이다. 사서들의 영아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문항들은 도서관의 영아 서비스 관련 문헌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제작하였다. 도서관의 영아서비스 현황 조사에 대한 문항은 국제도서관협회가 영아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평가도구를 기본 내용으로 하였다(IFLA 2008). 이 평가도구는 도서관의 서비스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체크하도록 한 도구로써, 도서관의 영아 서비스에 대한 실태 분석에 유용하다.

질문지는 경력 15년과 경력 5년차 사서 두 명의 검토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 수정을 실시하였다.

질문지 조사를 실시한 시기는 2009년 4월 20일에서 8월 10일까지이며, 전국 공공도서관 사서들에게 질문지를 실시하는 목적을 설명하고 직접 방문하여 설문 응답을 받거나 이메일로 발송하여 응답을 받았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질문지 수는 76부이다. 질문지에 응답한 사서의 학력 및 경력 분포는 다음과 같다.

응답 대상 사서의 학력은 4년제 대졸 49명(70.0%), 석사 9명(17.1%), 전문대 졸 12명(12.9%)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사서 설문응답자의 학력별 분포

학력	인원수	비율
전문대졸	12	15.8
4년제 대졸	49	64.5
석사졸업	9	11.8
무응답	6	7.9
전체	76	100.0

경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사서 경력 2~5년이 24명(3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6~10년이 14명(20.6%), 1년 이하가 13명(19.1%), 11~19년이 12명(17.7%), 20년 이상이 5명(7.3%) 순서였다(표 7 참조).

3.3 면접조사 및 대상

도서관 사서들의 영아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조사는 전국 공공도서관 사서 가운데 무선 표본 추출하였으며 질문지 조사와 마찬가지로 도서관의 북스타트 도입 여부에 관계없이 실시하였다. 면접 조사를 실시한 시기는 2009년 11월 1일에서 12일까지이며, 면접 대상 수는 14명이다. 면접 대상자의 개인 배경을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개인배경을 정리하면, 대구지역 사서 8명, 강원 1명, 전라 2명, 충청 3명, 총 14명으로 연령 및 경력이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 업무는 어린이실 담당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면접 도구는 크게 반구조화 면접지를 사용하였다. 면접 도구는, 첫째, 도서관의 기능 둘째, 재직하고 있는 도서관의 영아서비스 실태, 셋째, 도서관의 북스타트 사업 운영 및 효과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4. 공공도서관 영아 대상 서비스 연구 결과

4.1 공공도서관의 영아 대상 서비스 실태

4.1.1 공공도서관의 회원 등록 기준 분석

이 연구에서는 전국 도서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는 회원 등록 기준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공공도서관의 회원 등록 기준은 기관마다 상이하다. 〈표 9〉에 8개 어린이 도서관의 회원 등록 기준을 제시하였다.

어린이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출생 직후부터 초등학교까지를 회원 등록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순천 기적의 도서관은 초등학교 이상, 정읍 기적의 도서관은 3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각각 영·유아를 제외하고 있다. 특히 순천 기적의 도서관은 현재 북스타트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등록 기준에는 영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도서관의 경우는 영아를 위한 책임어주기 운동과의 협력체계를 도서관 서비스

〈표 7〉 사서 설문응답자의 경력별 분포

경력	1년 이하	2~5년	6~10년	11~19년	20년 이상	무응답	계
인원 수	13	24	14	12	5	8	76
비율	19.1	35.3	20.6	17.7	7.3	10.5	100.0

〈표 8〉 면접 조사 대상자의 개인 배경

이름	지역	연령	경력	담당
가	대구	50	26	평생교육
나	대구	38	13	수서, 정리
다	대구	39	14	어린이실
라	대구	35	12	어린이열람실 운영, 북스타트 담당
마	대구	42	14	어린이열람실 운영, 북스타트 담당
바	대구	31	2	어린이자료실
사	대구	26	2	자료실운영
아	대구	41	17	어린이열람실
자	강원 사북	40	7	프로그램
차	전남 순천	35	10	북스타트, 프로그램
카	전북 정읍	48	18	어린이도서관
타	충남 금산	48	7	어린이도서관
파	충북 청주	42	19	학교도서관
하	충북 청주	42	6	정보서비스

〈표 9〉 어린이 도서관의 회원 등록 기준(시행 기관별 가나다순)

도서관명	회원등록기준	개관일	북스타트 시행여부
금산기적의도서관	출생 1일~초등학교 6년	2005.5.5.	시행
부평기적의도서관	0세~누구나 가능	2006.3.10	미시행
순천기적의도서관	초등학생 이상	2003.11.10.	시행
정읍기적의도서관	3세~초등학교 6년	2008.5.23.	미시행
제주기적의도서관	0세~누구나 가능	2004.5.5.	시행
제천기적의도서관	출생 1일~초등학교 6년	2003.12.15.	시행
진해기적의도서관	출생신고~초등학교 6년	2004.2.2.	시행
청주기적의도서관	영, 유아, 초등학생을 둔 가족단위 회원(대표자 등록)	2004.7.15.	미시행

※ 자료: 각 도서관 홈페이지(2009. 8. 30 인용), 북스타트 코리아 내부 자료.

확대에 연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10〉에 13개 시립도서관의 회원 등록 기준을 제시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는 대부분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만 5세 이상, 초등학생 이상, 중학생 이상 등을 회원 등록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으로 영아를 그 대상에 포함하여 제시하지 않고 있다.

면접에서 사서들은 회원 등록 기준과 서비스 대상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들은 “회원등록 기준은 각 도서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는 필요한 사람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한다.” “회원 등록은 도서대출 및 회수와 관련이 있을 뿐 도서관 서비스와는 다르다”고 응답했다.

〈표 10〉 시립 도서관의 회원 등록 기준(시행 기관별 가나다순)

도서관명	회원 등록 기준	개관일	복스타트 시행 여부
경기 광주 시립도서관	만5세 이상		시행
구미시립도서관 형곡 본관	① 구미시 주민등록 등재자 ② 타지역 주민으로 구미시 소재 직장인 및 학생	1994.2.15	시행
대구광역시립남부도서관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	1995.12.8	시행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대구광역시민	1995.9.22	시행
대구광역시립서부도서관	대구광역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만 6세 초등학교 이상)	1993.12.23	시행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1세 이상 대구시민, 인근지역(경산 및 지역번호053지역) 학생 및 직장인	1919.8.10 1995.1.1.개칭	시행
대구광역시립두류도서관	- 초등학교 이상 대구시민 - 타 지역 거주자로 학교 및 직장 소재지가 대구일 경우	1981.9.1	시행
대구학생문화센터	영유아, 유아, 초·중·고등학생, 교사	2003.5.13	시행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성인, 중·고생 및 어린이	1979.5.4	미시행
익산시립도서관	어린이실-어린이, 학부모	1994.10.20	시행
전주시립도서관	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중학생 이상부터	1949.12.3.개관, 1989.6.10.개칭	미시행
정독도서관	서울시민 누구나	1977.1.4	시행
천안시립중앙도서관	① 천안 시민 ② 타지역 시민이면서 천안시에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자 ③ 외국인으로서 천안시에 체류지로 등록한 자	1990.4.10	미시행

※ 자료: 각 공공도서관 홈페이지(2009. 8. 30 인용), 복스타트 코리아 내부 자료.

그러나 면접을 한 대부분의 사서들은 회원 등록 기준이 서비스 대상이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회원 등록 기준이 만 6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도서관의 사서는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회원 등록 기준과 서비스 대상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는 “회원증이 없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열람 서비스 제공, 문화프로그램 참여 등은 가능하지만 우선은 주요 이용자층을 고려한 도서 선정, 도서 대출, 프로그램 참여 등이 우선하므로 회원증 미소유자는 2차적으로 고려되지기 때문”, “이용 대상에 맞춰 도서관이 되고,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세우기 때문”이었다.

4.1.2 공공도서관의 영아 대상 서비스 실태

공공도서관의 영아 대상 서비스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국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서가 재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영아 대상 서비스와 관련하여 현재 서비스 현황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설문은 국제도서관협회에서 영아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하였다. 현황에 대한 응답 보기는 고려하고 있음, 기획단계임, 이미 시행하고 있음, 성과평가를 할 예정이거나

과정 중임, 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IFLA 2008).

첫째, 도서관이 어린이를 위한 평생학습의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인서비스와 동등한 정도의 질적 수준이 높은 어린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51명(67.1%)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3명(17.1%)이 고려중, 10명(13.1%)이 기획단계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도서관은 만 36개월 미만 영아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지에 대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40명(54.8%), 고려하고 있음 19명(26.0%), 기획단계 14명(19.2%)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를 가진 영·유아 및 성인이 도서관 건물에 접근가능도록 이미 설계되어 있다고 응답한 사례가 59명(77.6%), 설계를 고려하고 있음 12명(15.8%), 기획단계에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명(6.8%)이다.

넷째, 도서관에는 영아를 위한 공간이 대체로 높은 비율(58명, 78.4%)로 마련되어 있었으나, 이제 고려하고 있는 경우가 11명(14.9%)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도서관은 영아를 위한 도서 등 자료를 구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6명(86.8%)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여섯째, 도서관은 영아 발달 및 학습단계에 적합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응답이 50명(65.8%)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17명(22.4%)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도서관은 연령에 적합한 자원들, 예를 들면 장난감, 인쇄물,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28명, 37.8%)보다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30명, 40.5%)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여덟째, 최신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와 이미 상당 수준에서 성과평가를 할 단계라고 응답한 경우는 41명(56.1%)에 불과했으며, 고려하고 있음 19명(26.0%), 기획단계에 있음이 13명(17.8%)으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프로그램 운영 비율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도서관은 지역사회 아기들을 위한 최상의 시설, 서비스 및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한다는 문항에 대하여 앞으로 고려할 것(28명, 38.9%),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26명(36.1%)으로 나타났다.

열 번째, 도서관은 영아의 부모교육에서 다양하고 흥미 있는 주제를 확장,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청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50명(68.5%)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고려하고 있다는 경우가 13명(17.8%)으로 나타났다.

열 한 번째, 도서관은 영아의 가족(양육자)이 도서관을 학습과 재미를 위해 자주 들러야 할 곳으로 인식하도록 자극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75.3%(55)이다.

열 두 번째, 도서관은 부모와 양육자들이 자신감 형성 및 문제해결기술을 배양하기 위한 비공식 모임(동아리 등)을 격려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36명(50.0%), 고려하고 있는 경우는 25명(34.7%)으로 나타났다.

4.2 공공도서관 사서의 영아 대상 서비스에 대한 인식

질문지 조사를 통하여 사서들에게 공공도서관의 기능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중복 응답하게 하여 알아보았다. 사서들은 도서 대출을 통한 정보 제공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40명, 26.3%). 그 다음으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기능 30명(23.0%), 독서진흥 25명(16.4%)의 순서로 나타났다.

사서들에게 도서관 사서의 역할에 대하여 중복 응답하도록 한 결과,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역할이 도서 선택 및 주문 46명(30.2%)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4명(28.9%), 독서지도 38명(25.0%)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도서 대출 및 정리는 불과 9명(5.9%)만이 응답하였다.

질문지 조사 결과, 사서들이 도서관을 첫 이용하는 시기로써 적합한 시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지 알아보았다. 사서들은 도서관 첫 이용시기로 유아기 39명(52.0%)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영아기(33명, 44.0%), 아동기(3명, 4.0%)를 꼽았다.

면접 대상 사서들은 11명이 영아기, 2명이 유아기, 1명이 아동기라고 응답하였다. 사서들의 영아 대상 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개방적이었으며, 영아가 아닌 유아 또는 아동 때부터 도서관을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결과는 질문지 조사 결과와는 상이하다.

4.3 공공도서관 사서의 북스타트에 대한 인식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북스타트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질문지 조사 결과, 사서들은 북스타트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있었으며(100%), 북스타트가 시행되어야 할 가장 적합한 장소로 도서관을 꼽은 경우가 82.4%(61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주민자치센터(4명, 5.4%), 보건소, 아동복지센터, 장소에 관계없이 공공기관이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각각 3명씩(4%) 있었다.

또한 도서관에서 북스타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데에 68명(91.9%)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반면, 4명(5.4%)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사서들이 재직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북스타트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77.3%(58명)이고, 도입하지 않은 도서관이 22.7%(17명)이라고 응답했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읍·면지역은 도입하고 있는 경우 16명,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 3명, 중소도시는 도입하고 있는 경우 38명,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 5명으로 나타나서 규모가 적은 지자체일수록 북스타트를 더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광역시와 수도권은 도입하고 있지 않다 4명, 도입하고 있다 1명으로 도입하고 있지 않은 곳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북스타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형태는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까지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42명(75%), 북스타트 책 꾸러미만 제공하고 있는 경우도 14명(25%)이 되었다.

도서관이 북스타트를 시행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아기에게 책을 접하게 해주기 위해서 도

입하게 된 경우가 19명(33.3%)로 가장 많고, 반드시 필요한 도서관 사업이라는 담당자 의견에 의해 도입된 경우도 14명(24.5%)이나 되었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도서관에서 정책적으로 도입하게 되어서 시작한 경우가 각각 10명(17.5%)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시작한 경우도 2명(3.5%)으로 나타났다.

면접 결과, 대부분의 사서들은 도서관에서 북스타트를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단 한명의 사서만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는 “북스타트의 후속 프로그램은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시행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면접을 통하여 사서로서의 업무와 북스타트 사업의 성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11명의 사서들은 맞지 않는 부분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응답한 사서는 3명이었다. 한 명의 사서는 “책 꾸러미 준비와 배부가 사서의 업무와 맞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북스타트 업무는 어떤 업무를 맡는 직원이 담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시청 평생학습과에서 일괄적 시행”, “자원활동가”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응답하였다.

4.4 북스타트 도입 이후 공공도서관의 영아 대상 서비스 내용 차이

공공도서관이 북스타트를 도입하는 경우, 도입 이전과 이후에 공공도서관 서비스 내용이 달라진 점을 질문지 조사하였다.

공공도서관 서비스 내용은 영아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및 아기 양육자의 인식변화, 사회

적 공동 육아의 실현, 이용자들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 및 이용 횟수 증가, 사서의 독서지도 및 프로그램 기획 역할 강화, 도서관 봉사자 증가, 소외지역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회 확대, 소외지역 및 계층의 도서관 이용 증가, 도서관의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강화 등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북스타트 도입 이전과 이후에 도서관 서비스 내용에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t 검증 결과, 9개 문항 모두 유의도 수준 .001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면접 결과, 북스타트 도입을 통해 재직하고 있는 도서관이 변화한 점으로 가장 많이 꼽은 사항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대상 연령이 어리고, 북스타트를 통해 자녀를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던 일반 성인의 도서관 이용도가 높아졌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도서관 이용이 증가되고, 영·유아 도서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이 증가했다.” “영·유아 이용자 증대,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참여자 증가, 영·유아 조기 독서습관 형성에 기여, 도서 대출량 증가, 도서관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도가 높아졌으며, 도서관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등이다.

북스타트는 기존 도서관의 개념과 기능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에, 면접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초등학생부터 시작되는 독서를 영·유아 때부터 또는 태어나면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화 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조용한 도서관, 꼭 도서 대출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누구나 쉽고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표 11〉 북스타트 도입 이전과 이후 공공도서관 서비스 내용의 변화 차이

도서관 서비스 내용에 대한 문항	이전 평균	이후 평균	t
아기에게 책 읽어 주는 방법과 양육 정보 제공 등 영아 대상 서비스 확대	2.57	4.09	-9.464232337***
지역사회 주민, 부모 및 양육자의 인식 변화	2.55	4.32	-14.14245998***
사회적 공동 육아의 실현	2.31	3.60	-8.343969381***
아기 부모 및 양육자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 및 이용 횟수 증가	2.72	4.33	-12.39276584***
사서의 독서 지도 및 프로그램 기획 역할 강화	3.24	4.18	-8.339567561***
도서관 봉사자 증가	2.76	3.91	-8.139102461***
소의 지역 및 계층, 다문화가정 가족(자녀)에 대한 기회 확대	2.47	3.58	-8.189821166***
소의 지역 및 계층(예: 다문화가정)의 도서관 이용 증가	2.47	3.47	-7.03562364***
도서관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3.22	4.20	-9.499330931***

*** p < .001

동네 사랑방과 같은 기능을 하는데 있어 북스타트가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하지 않았을 뿐 당연히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 영역까지 이제는 손길이 미친 것이라 생각된다. 누구나 도서관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소홀했던 영아 대상 북스타트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어린이 열람실 기능이 도서 대출, 반납 기능에서 벗어나 영·유아를 위한 독서 분위기 조성 및 후속프로그램 진행으로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영아까지 확대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평생교육기관으로써 공공도서관이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협력체계로써 시행

하는 북스타트가 공공도서관의 영아 대상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의 영아 대상 서비스 현황은 어떠한가? 실제로 공공도서관의 회원 등록 기준은 기관의 이용자 서비스를 좌우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공공도서관의 회원 등록 기준은 기관마다 상이하다. 어린이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출생 직후부터 초등학교까지를 회원 등록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어린이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영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북스타트를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공공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회원 등록 기준에는 영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책읽기 운동과의 협력체계를 도서관 서비스 확대에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서 면접 결과, 회원 등록 기준과 서비스 대상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서들은 동일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도서관이 평생교육기관으로써 기능하고자 한다면, 제도적으로 도서관에

접근하지 못하는 규정 등을 우선 폐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어린이 서비스를 위한 사설, 인력 및 예산 부족, 운영 노하우의 부재 등은 영아를 위한 서비스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이용자 비율 30%, 자료 대출 책 수의 77%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아졌으나, 어린이 시설 17%, 자료 23%, 직원은 13%에 불과할 만큼 매우 저조하다(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도서관의 영아 대상 서비스 현황에 대하여 질문지 조사한 결과, 도서관이 어린이를 위한 평생학습의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인서비스 동등한 정도의 질적 수준이 높은 어린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51명(67.1%)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도서관은 만 36개월 미만 영아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지에 대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우 40명(54.8%), 고려하고 있음 19명(26.0%), 기획단계 14명(19.2%)으로 나타나서 영아 대상 서비스를 실시하는 도서관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서관에는 영아를 위한 공간이 대체로 높은 비율(58명, 78.4%)로 마련되어 있었으나, 최신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와 이미 상당 수준에서 성과평가를 할 단계라고 응답한 경우는 41명(56.1%)에 불과했으며, 고려하고 있음 19명(26.0%), 기획단계에 있음이 13명(17.8%)으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프로그램 운영 비율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도서관의 영아서비스 의식 및 환경이 개선될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분이다.

둘째, 공공도서관 사서의 영아 대상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알아 본 결과, 도서관을 첫 이용하는 시기로 영아기(44.0%)보다 유아기(52.0%)를 더 적합한 것으로 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공공도서관 사서의 북스타트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사서들은 북스타트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있었으며(100%), 북스타트가 시행되어야 할 가장 적합한 장소로 도서관을 꼽은 경우가 82.4%(61명)로 가장 많았다. 또한 도서관에서 북스타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데에 91.9%(68명)가 동의했고, 사서들이 재직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현재 북스타트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77.3%(58명)이었다.

넷째, 북스타트는 공공도서관의 영아 대상 서비스의 내용을 변화시키는가? 즉 북스타트 도입 이전과 이후에 도서관의 영아 대상 서비스 내용이 차이가 있는가? 도서관이 북스타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서들은 북스타트 시행 이전과 이후에 도서관 서비스 내용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응답하였다. 북스타트 시행이후 도서관의 영아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및 아기 양육자의 인식 변화, 사회적 공동 육아의 실현, 도서관에 대한 관심 및 이용횟수 증가, 사서의 독서지도 및 프로그램 기획 역할 강화, 도서관 봉사자 증가, 소외지역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회 확대, 소외지역 및 계층의 도서관 이용 증가, 도서관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강화 등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면접 결과, 북스타트 도입 이후 도서관이 변화되었으며, 기존 도서관의 개념과 기능을 상당히 많이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이용자 증대, 영·유아 조기 독서습관 형성에 기여, 도서 대출량 증가, 도서관

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도 증가, 가족 이용자의 증가, 도서관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 증가 등의 내용이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관이 북스타트를 도입함으로써 도서관의 발전과 개선, 서비스 구조의 확립 등에 긍정적 변화를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2 제언

영아로의 서비스 대상 확대는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를 활성화함은 물론 전체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어린이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영아와 그 부모에게 서비스를 확대하여 영아와 그 부모가 새로운 독서문화와 공공도서관 문화 형성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평생교육을 수행할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체제를 확립할 수 있다. 이제 공공도서관은 전통적 도서관의 역할을 깨고 진정한 의미의 평생교육기관으로써 서비스 대상을 더 넓게, 즉 영아부터 노인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부단히 변화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영아를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이용자에게 평등한 접근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도서관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양질의 어린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서관은 회원 등록관리 기준 등 제도적 차별을 없애고, 계층 및 성에 관계없이 영아에게 동일한 문화 기회와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격차를 감소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둘째, 도서관은 어린이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시설, 자료, 사서를 갖추고, 영아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힘써야 한다.

셋째, 어린이 전문 사서 양성을 통해 영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책' 관련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서관 간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있다.

넷째, 북스타트의 영아 서비스 확대는 가족 문화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도서관은 북스타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을 위한 독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북스타트는 도서관이 영아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경기광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gjcity.go.kr>>.
- [2] 구미시립도서관 형곡 본관 홈페이지. <<http://www.gumilib.or.kr>>.
- [3]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4] 금산기적의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geumsan.go.kr>>.

- [5] 김영석. 2004. 영국 북스타트 운동의 의의와 그 추진 현황-세필드 북스타트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2): 291-313.
- [6] 김종성. 2008. 공공도서관 어린이 서비스의 기본 원리에 관한 연구 - 국내외 어린이 서비스 가이드 라인을 중심으로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2): 469-492.
- [7] 대구광역시립남부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bl.or.kr>>.
- [8] 대구광역시립달성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dsl.daegu.kr>>.
- [9] 대구광역시립대봉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dblib.daegu.kr>>.
- [10] 대구광역시립두류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duryu-lib.daegu.kr>>.
- [11]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dongbu-lib.daegu.kr>>.
- [12] 대구광역시립북부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bukbu-lib.daegu.kr>>.
- [13] 대구광역시립서부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seobu-lib.daegu.kr>>.
- [14] 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suseong-lib.daegu.kr>>.
- [15]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tglnet.or.kr>>.
- [16] 대구학생문화센터 홈페이지. <<http://www.dccs.go.kr>>.
- [17]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lip.go.kr/>>.
- [18]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9.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2009 시행계획』. [서울]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19] 설리반 마이클. 2007. 어린이사서의 서비스 제공 대상은 누구인가? 『어린이 서비스의 기초』.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옮김.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원전: *Fundamentals of Children's Services*.
- [20] 부평기적의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bpml.or.kr>>.
- [21] 북스타트 코리아 홈페이지. <<http://www.bookstart.org>>.
- [22] 북스타트 코리아. 2008. 『2008 북스타트 코리아 전국대회 자료집』(미간행). [서울]: 북스타트 코리아.
- [23] 북스타트 코리아. 2009. 북스타트 시행기관 통계. 『북스타트 코리아 워크숍 자료집』(미간행). 서울: 북스타트 코리아.
- [24]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childrenlib.go.kr>>.
- [25] 서일민 외 1. 2007. 이야기를 통한 어린이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제2회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26] 순천기적의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scml.or.kr>>.
- [27] 카렌 M, 벤추렐라. 2002. 『도서관을 통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2가지 도서관 활동 이야기』. 도서관운동연구회 옮김. 서울: 한올아카데미.
- [28] 유네스코. 1995. "유네스코 공공도서관 선언." [2009.8.30인용].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

- [29] 육길나, 김숙령. 2009.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에서의 어머니 행동 특성과 영아의 행동 특성 및 애착 안정성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9(5): 95-118.
- [30] 익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iksan.go.kr>>.
- [31]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jeonju.go.kr>>.
- [32] 전효정 외. 2004. 초기 언어발달에 있어 환경적 영향의 특수성. 『아동학회지』, 25(5): 163-178.
- [33] 정독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jeongdoklib.go.kr>>.
- [34] 제주기적의도서관 홈페이지. <<http://miracle.jeju.go.kr>>.
- [35] 제천기적의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kidslib.org>>.
- [36] 진해기적의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jhml.or.kr>>.
- [37] 천안시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jungang.or.kr>>.
- [38] 청주기적의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cjmiraclelib.com>>.
- [39] 한국 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편). 2003. 『공공도서관 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40]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중장기 발전 방안』.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41] 홍현진, 강미희, 정미봉, 정대근. 2009. 어린이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도서관 실태 조사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2): 53-90.
- [42] Hill, S. 2006. "Baby Bounce: The Little Big Book Club way to begin literacy for children 0-2 years. Paper presented at the Early Literacy Research Symposium,"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Chicago, April 29-May 5 2006.
- [43] IFLA(2008). Professional Report 100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to Babies to Toddler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 [44] Gill, P.(ed.)(2001). Public Library Service-IFLA/UNESCO Guidelines for Development.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Munchen: Saur.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Gwangju City Public Library Homepage. [online]. <<http://lib.gjcity.go.kr>>.
- [2] Gumi City Public Library Homepage. [online]. <<http://www.gumilib.or.kr>>.
- [3]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online]. <<http://www.kosis.kr>>.
- [4] Geumsan Miracly Library Homepage. [online]. <<http://library.geumsan.go.kr>>.
- [5] Young-Seok Kim. 2004. "Bookstart in the UK: its operation and significance - A case study

- of Bookstart in Sheffield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2): 291-313.
- [6] Jong-Sung Kim, 2008, "A Study on the Fundamentals of Children's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Service Guidelines."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2): 469-492.
- [7] Daegu Metropolitan Nambu Library Homepage. [online]. <<http://www.nbl.or.kr>>.
- [8] Dalseong Library Homepage. [online]. <<http://www.dsl.daegu.kr>>.
- [9] Daegu Daebong Municipal Library Homepage. [online]. <<http://www.dblib.daegu.kr>>.
- [10] Daegu Duryu Public Library Homepage. [online]. <<http://www.duryu-lib.daegu.kr>>.
- [11] Daegu Dongbu Public Library Homepage. [online]. <<http://www.dongbu-lib.daegu.kr>>.
- [12] Daegu Metropolitan Bukbu Library Homepage. [online]. <<http://www.bukbu-lib.daegu.kr>>.
- [13] Daegu Seobu Public Library Homepage. [online]. <<http://www.seobu-lib.daegu.kr>>.
- [14] Suseong Public Library Homepage. [online]. <<http://www.suseong-lib.daegu.kr>>.
- [15] Daegu Metropolitan Jungang Library Homepage. [online]. <<http://www.tglnet.or.kr>>.
- [16] Daegu Cultural Center For Students Homepage. [online]. <<http://www.dccs.go.kr>>.
- [17]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Homepage. [online]. <<http://www.clip.go.kr/>>.
- [18]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09. *Doseogwanbaljeon Jonhapkyehoek 2009 Sihanggyehoek*, Seou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 [19] Sullivan, Michael, 2007. "Eoriniseoui Service Jegong Daesangeun Nuguinga?" *Eorini Serviceui Gicho*. Translated by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 Young Adults. Seoul: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 Young Adults.
- [20] Bupyeong Miracle Library Homepage. [online]. <<http://www.bpml.or.kr>>.
- [21] Bookstart Korea Homepage. [online]. <<http://www.bookstart.org>>.
- [22] Bookstart Korea, 2008. 2008 *Bookstart Korea Jeongukdaehoe Jaryojib*. Preprint, Seoul: Bookstart Korea.
- [23] Bookstart Korea, 2009. "Bookstart Sihanggigwan Tonggye." *Bookstart Korea Workshop Jaryojib*. Preprint, Seoul: Bookstart Korea.
- [24] Children's Public Library Homepage. [online]. <<http://www.childrenlib.go.kr>>.
- [25] Il-Min Suh et al, 2007. "Iyagireul Tonghan Erinidoseogwan Damunhwa Service." *International symposium*. Seoul: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 Young Adults.
- [26] SunCheon Miracle Library Homepage. [online]. <<http://www.scml.or.kr>>.
- [27] Venturella, Karen M, 2002. *Poor People and Library Services*. Translated by Undongyeonguhoe.

Seoul: Hanul Academy.

- [28] UNESCO. 1995. "Public Library Manifesto." [online]. [cited 2009.8.30].
〈<http://www.kla.kr/>〉.
- [29] Gil-La Yuk, & Sook-Ryong Kim. 2009. "Geurimchack Ilggi Sanghojakyongeseoui Eomeoni Haengdong Tuikseonggwa Yeongau Haengdong Tuikseong mit Aechack Anjeongseonggwaui Gwangye."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9(5): 95-118.
- [30] Iksan City Public Library Homepage. [online]. 〈<http://www.iksan.go.kr/>〉.
- [31] Jeonju Municipal Library Homepage. [online]. 〈<http://lib.jeonju.go.kr/>〉.
- [32] Hyo-Jeong Jeon, Kwee-Ock Lee, & Hyewon Park. 2004. "The Specificity of Environmental Influenc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5(5): 163-178.
- [33] Jeongdok Public Library. [online]. 〈<http://www.jeongdoklib.go.kr/>〉.
- [34] Jeju Miracle Library Homepage. [online]. 〈<http://miracle.jeju.go.kr/>〉.
- [35] Jecheon Miracle Library Homepage. [online]. 〈<http://www.kidslib.org/>〉.
- [36] Jinhae Miracle Library Homepage. [online]. 〈<http://www.jhml.or.kr/>〉.
- [37] Cheonan City Library Homepage. [online]. 〈<http://www.jungang.or.kr/>〉.
- [38] Ceonju Miracle Homepage. [online]. 〈<http://www.cjmiraclelib.com/>〉.
- [39] Korean Library Association Doseogwangijunjakseongteukbyeolwiwonhoe. 2003. *Gonggongdoseogwan Gijun*.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40]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e. 2006. *Gukribeorinicheongsoneondoseogwan Jungjanggi Baljeon Bangan*. Seoul: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e.
- [41] Hyun-Jin Hong, Mi-Hee Kang, Mi-Bong Jung, & Dae-Keun Jeong. 2009. "An Analysis of the State of Libraries in Pursuit of the Efficient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Children's Library Program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2): 53-90.

